



서울시 치과의사회 주관 제35회 구강보건시상식 성료

1980. 6. 10.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 ◆ 최우수 구강보건관리학교 : 송천 국민학교.
- ◆ 최우수 건치노인 : 김수해씨(남)
- ◆ 건치아동 서울시 대표 : 엄정한 외34명(구산국교)
- ◆ 모범양호 교사 : 은평국교 신소자 양호교사 외
- ◆ 모범진료 가족 : 세대주 이한경씨등 3세대

서울시 齒科醫師會는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제35회 口腔保健施賞式을 개최하고 口腔保健관리 모범학교로 송천국민학교를, 서울市長이 수상하는 건치노인 최우수상에는 김수해(63세) 할아버지를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池憲澤齒協會長 李윤복 서울市 保社局長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崔재경 서울市 齒科醫師會 회장은 식사를 통해 「35회 구강보건시상식을 내외귀빈과 시상자와 학부모를 모시고 갖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합니다. 이들을 훌륭하게 가꾸고 키우기 위하여 부모님들은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러나 어린이에게 한가지 소홀한 것은 치아관리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나쁜 치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치아는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鄭相千 서울市長은 (서울市 保社局長代讀) 축사를 통해 서울市 齒科醫師會가 매년 구강보건계몽주간을 정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는데 대해 격려를 하면서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口腔保健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전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치아를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齒協池憲澤會長은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매년 구강보건시상식을 갖는 것은 건강한 치아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데 뜻이 있다는 인사말이 있었고 시상식에 들어 갔는데 시상자는 다음과 같다.

◇ 건치노인(서울시장상)

▲ 최우수상 = 김수해씨(男)

서울市 성북구 길음동 559

▲ 우수상 = 박귀예씨(女)

서울市 강서구 신월동 585~5

▲ 우수상 = 권추란씨

◇ 건치아동(서울시장상)

▲ 최우수상 = 김수해씨(男) 서울市 성북구 길음동 559

▲ 우수상 = 박귀예씨(女) 서울市 강서구 신월동 585~5

▲ 우수상 = 권추란씨(女) 서울市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77

◇ 구강보건관리 모범학교

▲ 최우수상 = 송천국민학교 ▲ 우수상 = 면목국

교 ▲ 장려상 = 신용산국교

◇ 건치아동 서울시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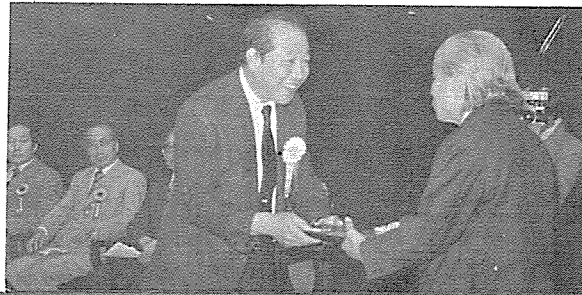
▲ 구산국민학교 엄정한 등 34명

◇ 모범양호교사

▲ 은평국민학교 양호교사 신소자씨 등 17명

◇ 모범진료가족

▲ 세대주 이한경씨 등 3세대 가족.



KUM KANG

Dental Lab

261 - 0673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종로구 종로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